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향후 금리 인상 천천히... 최종 금리수준을 더 높게
- Bloomberg: 미 근로자 생산성 변동 없다... 인건비 낮출 수 있을까
- WSJ: 미 실업수당 청구건 여전히 낮다... 노동시장 강세 지속
- NYT: 이번 금리 인상이 모기지, 크레딧 카드 등에 미치는 여파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 모기지율 이번주에 7% 아래로 떨어져
- WSJ: 파월, 시장 참가자들에 “금리 최종 수치에 관심 가져야”
- JP모건 보고서: 가상화폐 추락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미래

[글로벌 경제]

- WSJ: 유럽, 전기 자동차 감세 미국 조치 혜택 추진한다

[항공/해상 물류]

- WSJ: 수년 내 새로운 형태 비행기 탈 수도... 연료 효율 높인다
- WSJ: 해운 대기업 Maersk, 앞으로 혐난한 항해 예상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미 자이언트 스텝] "연준, 긴축 누적효과 고려"...12월 50bp 베팅 확대
- 한경: 영국도 '자이언트스텝'...33년 만에 금리 최대폭 인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NYT: 블랙록, 기업 거버넌스에 '주주 민주주의의 혁명' 강조
- WSJ: 돈보다 “워라밸” 택하는 미국인들... 인플레로 시험에 들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eral Reserve Hikes by 0.75 Point, Signals Slower Increases but Ultimately Higher Rates

연준 향후 금리 인상 천천히.... 최종 금리수준을 더 높게

- 어제 수요일 0.75% 금리를 인상시킨 연준은 1) 앞으로도 금리를 계속 올릴 계획이며 2) 아마도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소폭으로 3)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릴 것으로 보인다.
- 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12월 모임에서 좀 더 낮은폭의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내년에 자신들의 당초 예상보다 대출 비용(금리)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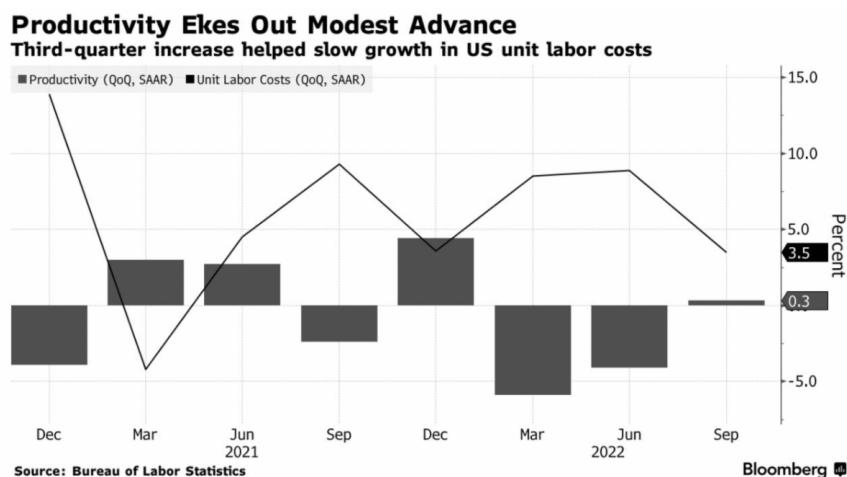
- 한마디로 그의 입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언제 둔화되느냐 보다는 얼마나 높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긴축 금융 정책을 유지하느냐 라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그는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은 시기 상조”라면서 “우리가 생각 하기를, 갈길이 멀다”라고 덧붙였다.

WSJ 기사

Bloomberg: US Worker Productivity Barely Rises, Though Helps Cool Labor Costs

미 근로자 생산성 변동 없다... 인건비 낮출 수 있을까

- 이번 주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비농업 분야 직원의 시간당 생산량은 3분기에 0.3%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분기에는 4.1% 떨어졌던 수치가 간신히 늘어난 것이다.
- 기업이 단위당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인 단위노동비용은 2분기 8.9%로 급등했다가 3분기 3.5% 증가했다. 근로자 생산성이 소폭 개선되고 시간당 임금 증가세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건비는 전년 동기 대비 6.1%나 늘었다.



- 근로자 생산성은 고용주들이 능력 있는 새로운 인재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노동시장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생산성의 지속적인 하락은 긴축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셈이 된다.
- 팬데믹의 여파로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하향 이동하는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WSJ: Jobless Claims Remain Low in Tight U.S. Labor Market

미 실업수당 청구건 여전히 낮다... 노동시장 강세 지속

- 연방 노동부는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지난 주 실업수당 청구액이 전주 21만 8천 건에서 지난 주 21만 7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용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냉각되었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9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올해 들어 가장 적었지만 실업률은 3.5%로 떨어지며 반 세기 만의 최저치였던 지난 7월의 수치와 일치했다. 경제 불확실성과 침체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연준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노동 시장이 임금과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어제 기준금리를 0.75% 인상하였다.

Initial jobless claims, weekly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via St. Louis Fed

WSJ 기사

NYT: What Fed Rate Increases Mean for Mortgages, Credit Cards and More

이번 금리 인상이 모기지, 크레딧 카드 등에 미치는 여파

<크레딧 카드>

평균 크레딧 카드율이 지난 3월에 16% 상승에서 10월 19일 현재 18.7% 올랐다. 향후 한두차례 크레딧카드 고지서를 받게 될때 인상율이 반영된다. 금리가 자주 올라가면서 자주 크레딧 카드율도 올라간다.

<자동차 용자>

신차 융자 이자율은 올해 3분기 5.7%로 작년 동기의 5%에 비해 올랐다. 이자율은 연금 금리 영향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크레딧, 자동차 종류, 융자 기간, 다운 페이먼트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자동차 융자 이자율이 올라가겠지만 자동차 구입 비용과 가스비가 워낙 오른 상태다.

<모기지>

30년 고정 모기자율은 연준 금리와 같이 움직이기 보다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따라간다. 현재 모기지율은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지난주에 7% 상회했다. 흠 에쿼티 크레딧 라인(HELOC)과 변동 금리 저당 대출(adjustable-rate mortgages)은 연준 금리 변동후에 향후 2개 고지서가 오는 기간내에 오르게 된다.

<학비 융자>

새로운 연방 융자는 보통 7월에 10년물 국채 옵션(매년 5월)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7월 1일 이후에 지불된 융자금에 대해 4.99%를 내야한다. 당연히 비공공 학생 융자 비율은 더 높다.

<저축 이자율>

이자율이 오르지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연방 재무부채(Treasury security)를 따라가는데 오르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뱅크 평균 1년짜리 CD는 지난 9월부터 3.2%였다.

NYT 기사

[미국 금융]

CNN Business: Mortgage rates dip back below 7% 미 모기지율 이번주에 7% 아래로 떨어져

-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주에 7%를 상회했던 모기지율이 이번주에 7% 미만으로 떨어졌다.
-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11월 3일 끝나는 주에 6.95%로 떨어졌다. 그 전주는 7.08%였다. 작년에는 30년 모기지가 단지 3.09%였다.
-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의 추가로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 구매 수요는 현재 수그러지고 있다. 잠재적 구매자들도 융자 자격이 더 까다로워진 상황이 됐기에 구매가 힘든 상황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Federal Reserve Chief Tells Markets to Focus on Interest-Rate**Endpoint****파월, 시장 참가자들에 “금리 최종 수치에 관심 가져야”**

-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투자자들에게 금리가 얼마나 빠른 폭으로 오르느냐에 신경쓰지 말고 결국 얼마나 높은 수준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라는 메세지를 던졌다.
- 그의 핵심 메시지는 향후에 금리 상승세가 늦춰진다 해도 우리 연준은 당초 9월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에는 최종 금리가 4.6%일 것으로 보았다.
- 현재 관계자들은 최종 금리율을 결정하는 요인들인 경제, 금융, 인플레 요인들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WSJ 기사

JP 모건 보고서: After the Crypto Crash - Lessons Learned and the Future**Role of CBDCs****가상화폐 추락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미래**

- 가상화폐 시장 자산은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3분 1이 줄었다.
- 작년 11월 피크였던 나스닥과 기술주 하락 하락은 가상화폐에 영향주었다. 상관 관계는 크게 늘었다.
- 가상화폐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은 금융 화폐 시스템의 변화에 계속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이노베이션과 관련해 현재의 도전은 혁신 발전과 금융 안정/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시키느냐이다.
- 정책 결정자들은 돈세탁 등 불법 활동 규제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른바 금융 안정에 역점을 두고 KYC (Know your customer) 를 개선시킬 것이다.
- 각국 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 목적은 다르다. 아직 아시아 지역에서 CBDC 발행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과 인도의 주도로 이 화폐 발행에 선두에 서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다.

JP 모건 보고서 원문

[글로벌 경제]**WSJ: Europe Seeks Exemption From U.S. Rules on EV Tax Breaks**

유럽, 전기 자동차 감세 미국 조치 혜택 추진한다

- 내일 금요일 미 국가 안보위원회와 유럽연합 내각이 이끄는 테스크포스는 미국이 국내 생산한 전기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는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유럽에서 만든 차량에 대해서는 크레딧 자격이 없다는점에 유럽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량에 7천5백불까지 세금 리페이트를 주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최소 40% 이상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제공 물질이어야 한다. 그 상한선은 80%가 될때 까지 매년 올린다는 것이다.
- 한국과 일본은 이미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은 이번주에 이와 관련 연방 재무부 의견 수렴 과정에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 이번주 초에 유럽연합의 무역위원장(EU Trade Commissioner)은 미국의 녹색 보조금 조치는 유럽 연합의 자동차, 재생 에너지, 배터리,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을 해치는 차별로 보인다고 말했다.

WSJ 기사

[항공/해상 물류]

WSJ: The Weird-Looking, Fuel-Efficient Planes You Could Be Flying In One Day

수년 내 새로운 형태 비행기 탈 수도... 연료 효율 높인다



-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새로운 연료가 등장하면서 군용 제트기에 사용되는 “혼합 날개(blended-wing)” 디자인이 수 년 안에 여객기에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 기준과 항공사의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과감한 디자인이 필요해진 것이다.
- 한편 NASA는 2023년 회계연도 예산 2백 60억 달러 중 단지 10억 달러를 항공기 관련 분야에 책정했다. 또 추가로 내년 1월에 발표될 새로운 항공기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과 테스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제트 여객기를 항공사에서 채택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승객 수용성이 좋아야 하므로, 가까운 미래에 어떤 형태의 여객기를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WSJ 기사

WSJ: Maersk Will Weather the Rough Seas Ahead 해운 대기업 Maersk, 앞으로 험난한 항해 예상

- 팬데믹과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이 끝나가면서 덴마크의 대형 해운사 Maersk는 글로벌 경기침체,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16분기 연속해서 실적 증가, 3분기 수익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등의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전 세계 컨테이너 운송의 약 20%를 취급하는 Maersk는 올해 글로벌 컨테이너 수요가 2~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Drewry Shipping Consultants의 세계 컨테이너 지수는 연초 대비 67% 떨어졌다.
- 하지만 Maersk는 견고한 장기 계약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사들의 결정과 업계가 배송 물량을 줄이는 속도, 재계약 성공률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미 자이언트 스텝] "연준, 긴축 누적효과 고려"...12월 50bp 베텁 확대
- 한경: 영국도 '자이언트스텝'...33년 만에 금리 최대폭 인상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NYT: BlackRock Sees a 'Revolution' Coming in Corporate Governance 블랙록, 기업 거버넌스에 '주주 민주주의의 혁명' 강조

- 8조 달러를 관리하는 블랙록의 머니 매니저인 Larry Fink는 자사 고객들에 보낸 메모에서 투자자들이 환경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회사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회사의 결정에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revolution in shareholder democracy"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 즉, 주주들이 기업내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하는지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프로그램은 Voting Choice로 불리는데 연례 주주총회에서 블랙록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표하는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것. 머니 매니저들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

온 것으로 알렸다. Charles Schwab and Vanguard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NYT 기사

WSJ: Some Americans Chose Work-Life Balance Over Pay. Inflation Is Testing Their Mettle.

돈보다 “워라밸” 택하는 미국인들... 인플레로 시험에 들다

- 팬데믹 이후 노동력의 부족이 임금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수입이 늘어났으나, Prudential Financial에 따르면 상당수의 구직자들은 팬데믹 기간 급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초부터 이직을 한 사람의 32%가 급여가 줄었다고 답한 것이다.
- 하지만 그들의 3분의 1만이 이전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약 25%는 더 나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위해 급여가 더 적은 일을 택했다.
- 한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적은 급여와 워라밸을 택했던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다. 이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들 중 38%가 제2의 일자리를 알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14%가 두 개의 일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증시, 금리인상 중단 '헛된 기대감' 파월 입에 깨지자 와르르

"금융시장, 인상 '속도조절'을 '방향전환'으로 오해해왔다"

기술주 타격...세계 500대 갑부 재산 84조원 증발

"시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방향 전환'으로 오해해왔다.", "산타 포즈'(12월 금리인상 중단)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바꿀 것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대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으로 사라지면서 뉴욕증시가 무너졌다.

2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3일 오전 3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성명 발표 후 시장은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 메시지에 주목하며 급등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